

2.7.(화) 14:00/ 1층 대회의실

참석자:

김학서 위원, 김현옥 위원, 채수경 위원, 임전수 위원, 봉정현 위원, 전규미 위원, 김혜정 위원, 김복렬 위원, 윤정오 위원, 임동현 의정담당관, 김온희 운영지원담당, 박승민 산업건설전문위원

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임동현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단 선출 후 출장 계획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다면 최고 연장자이신 김복렬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제가 나이가 제일 많군요

없습니다. <별도 의견 없음>

의정담당관: 그러면 지금부터 김복렬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서는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세종시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현 위원: 김복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별도 의견 없음>

임시위원장: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별도 의견 없음>

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봉정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별도 의견 없음>

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봉정현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별도 의견 없음>

위원장: 봉정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봉정현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단 선출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출장계획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제안설명 등 심사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오늘 심사에 제출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인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해 산건위 소관 산업 경제 건설 분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민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박승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공무국외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시행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은 '23. 2.12일 부터 2.17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전문위원실 직원 3명과 함께 말레이시아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활동일정 및 주요 방문기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쿠알라룸푸르의 도시과밀 해소를 위해 1999년 경 조성된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 관리청"을 2.13일 방문하여, 세종시 설계과정부터 참조한 바가 있는 이 도시의 역사와 발전상 등을 벤치마킹하고,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상업과 주거지구를 함께 갖춘 스마트 도시인 사이버자야와, 쿠알라룸푸르의 스마트터널을 방문하여 "스마트수류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2. 14일 오후에는, 싱가포르로 이동, 국가차원의 도시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조직인 "도시 재 개발청"을 방문하여 도시재개발 과정과 역사, 향후 도시계획의 방향성 등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물 관장 기관인 "뉴워터 센터"를 2.16일 방문하여 물 재생 시스템 구축과 운영상황 등을 학습하여 우리 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위원 1인당 약 283만원으로, 경비산출은 「공무원 여비규정」 등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공무국외연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7명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을 안건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민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보다 비행기, 숙박비 등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을까요?

박승민 전문위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됐으며 항공운임료는 실비,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의 85%인 할인 정액을 적용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가등급이고 말레이시아는 다등급이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각각 자부담 27~30만원 정도 발생 예상됩니다.

김현옥 위원: 국가별로 상이해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승민 전문위원: 여비 규정 별표4에 따라 국가별 등급에 차등이 있으므로 지급 여비가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정현 위원: 처음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자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해당 공무국외연수는 공무국외출장 조례 2조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또 여비 산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승민 전문위원: 여비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및 지급표에 따라 항공운임료 및 보험료는 실비로, 숙박비는 할인 정액으로 일비, 식비는 정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공무국외출장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전엔 인당 실제 소요비용이 250만원 정도면 나왔었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 숙박비

등이 올라 300에서 3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와 실제 소요비용에 차이가 생겨 자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봉정현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이번 출장이 조례 2조 각호 어디에 해당 될까요? 제 생각에는 제4호 국외연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박승민 전문위원: 네 4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봉정현 위원: 조례를 사전에 검토하고 거기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추진하시는 곳에서 사전에 체크를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잘못된 출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내용상 문제되는 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출장과 관련해서 절차를 밟을 때는 사전에 규정에 의거 어느 출장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승민 전문위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봉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지원담당: 300만원이 상한이며 공무원 여비규정 등 기준에 의거 최소 여비만 지원했다는 설명 드립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교육안전위원회는 하반기로 출장을 연기했는데 출장을 갈 거면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하는데 예산에 맞춰 조금은 불필요한 곳을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배워야 될 걸 배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국외 출장 예산을 적게 설정한 이유가 뭔가요?

운영지원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해당 예산은 임의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의원국외여비는 의회비에 포함되며 의회비는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봉정현 위원: 이미 주어진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질타하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을 생각해서 제한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조정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혹시 방문지가 당초 계획에 비해 바뀐 점이 있을까요?

박승민 전문위원: 싱가포르에서 출장지 섭외하기가 당초에 어려웠는데 대외협력담당관의 도움을 받았습시다.

김현옥 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출장 계획에서 학교 관련 거절된 적이 있어서 물어봤습시다. 출장 중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은 잘 마련하셨나요?

박승민 전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잘 준비했습시다.

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시다. <별도 의견 없음>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출장 계획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4:43 폐회